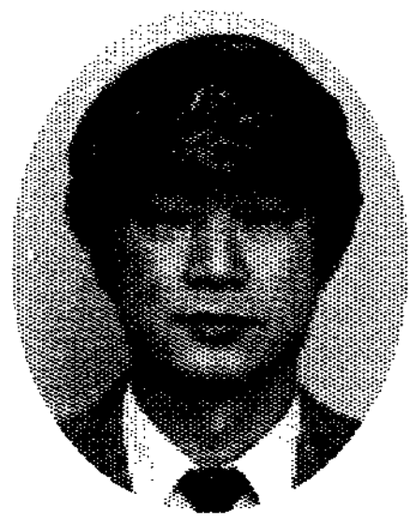
치과보철물과 치아주위조직



최대균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매일매일 행하는 치과보철치료에 있어서 가장 골치거리는 역시 치주질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보철치료의 목적은, 치관을 예로들면, 삭제한 치아를 인공치관으로 피복하고, 이것이 훌륭하게 기능을 하여야 하며 또한 심미적인 상태를 유지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보철물이 치아주위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서 환자의 일생과 수명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하여 보철물은 Marginal leakage없이 지대치를 피복하여야 하며, 보철물과 치질 및 치주조직과는 갈림이 없도록 매끄럽게 이행적이어야 하고, 청소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기능시의 섭취물등에 의한 치아주위조직의 적절한 자극 (Stimulation)이 될 수 있는 형태(Contour)를 가져야 하고, 환자 개개인에 합당한 교합을 유지 또는 재현시켜서 가능한한 생리적인상태를 유지하여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즉, 치과보철물은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강제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구강제조직의 파괴를 막을 수 있으며, 이것은 비행기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고, 배는 배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위를 뜰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치관을 예로들면 이것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margin, contact point, 협설적인 contour 그리고, 대합치와의 접촉관계(교합면)등 어는 것 하나라도 소홀히 취급되면 이것을 둘러싼 치아주위조직은 파괴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치과보철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치주조직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치주조직의 건강은 치과보철물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며 치아주위조직과는 어떠한 상태하에서 관계를 가지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여도 반론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본 강연에서는 치과보철물이 치아주위조직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과 이미 치아주위조직의 파괴로 위하여 대부분의 치아가 발거되고 소수치만이 잔존하는 경우, 소수잔존치를 가급적 오랜동안 수명유지를 시키기 위한 보철치료에 대하여 본인이 늘상 시행하고 있는 보철치료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본 경연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약 력

1968. 3 - 1974. 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79. 2 - 1986. 3 일본대학교 치학부 보철학교실 (수련 및 박사학위 취득)

1986. 3 - 현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1996. 2 - 1997. 1 미국 UNL 보철학교실 방문교수